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받을때까지 투쟁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이 4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4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도의회는 이날 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염영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압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찢겼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된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즉각 수용할 것”을 경고했다.

염 의원은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에서 열린 성일하이텍 새만금 제3공장 준공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국무원 영은 도의회 의장, 세르테헤이 이수트만 주한 헝가리 대사, 김임준 군산시장 등을 비롯해 이강영 성일하이텍 대표이사, 이경열 에스이머티리얼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테이프커팅식을 가진 뒤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북자치도, 산림분야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산림청 광역지자체 대상 산림정책 전반 실적 종합평가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자치도는 산림청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실적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는 산림청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성과로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최고 산림행정을 펼치는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조립,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과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목재 이용 활성화 및 임도 시설,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전북

자치도 전 직원이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이번 평가는 산림청에서 광역·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삼각진행도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임도 시설 실적률 △목재 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시행됐다.

이와 함께 산림 행정의 효율성, 통합성 확보를 위해 국가 주요 산림정책, 국가 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복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도민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조립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올해 치유의 숲, 지방정원, 자연휴식림, 산림레포츠시설 등 신규 조성 등 산림치유·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반 확대를 위해 15종 114개소 1,01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쌀값 정상화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나인권 도의원,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2023년산 쌀 재고 물량 추가 시장격리 시행 등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쌀 수확기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쌀값은 80kg 한 가마니에 18만8,71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 20만2,797원 대비 1만 4,081원이 하락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총 10만 톤의 쌀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으나, 쌀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92만5,000톤으로 전년 대비 25만톤(37%)이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쌀 재고 물량은 창고를 빼곡히 채우고 있고 쌀소비는 지속해서 감소해 쌀값 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이 4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락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 동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쟁쟁 속에 정작 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쌀값 문제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농민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쌀값 폭락 방지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3년 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균형수매·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펴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원, 각 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특위 활동 마무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중구·사진)는 4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전북자치도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고 그 이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산업부 방문 건의서 전달, 서울과 세종 등에서 유치 기원 캠페인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7월 새만금이 국가 첨단전력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북자치도에 △이차전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통 SOC 인프라 구축 △기반 시설 확충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등 4가지 정책을 제시했으며, 본 내용은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중구 위원장(군산 2)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4곳이 지정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다”며, “특위 활동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들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남원형 전통시장 모델 발굴 행보 이어가

남원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강인식) 전남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남원형 전통시장 모델 발굴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방문은 강인식 대표의원 소속 회원인 이숙자, 한명숙 의원과 남원공설시장 상인회(회장 김성자)와 함께 진행됐으며 △환경시장에서는 상인회 장으로부터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상인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흥시장에서는 숯불 생선구이를 활용한 먹거리 중심의 특화형 시장모델 △광양 5일장에서는 지난해 매주 토요일 ‘이리아리 플라마켓’을 운영했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인식 대표 의원은 “이번 선진지 견학 이후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관내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깊은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해외 탄소중립정책, 도정 반영 계기로

전북자치도의회 환북위, 국외정책연수 결과 정책제안 간담회
체코 · 독일 모범 탄소중립정책 사례발표 · 도 정책발굴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4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전북자치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의국장, 한소숙 생활환경과장,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장남정 센터장과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 등 합동연수단을 포함한 20여명이 인원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프라하 환경보호부, 프라이부르크환경국, 디아코니아 부르크템페르크, 뉘른베르크 전기차충전 허브 등 7개 기관을 방문한 결과에 따른 우수정책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병철(전주7) 위원장은 “문서 등 자료로만 접할 수 있었던 체코와 독일의 탄소 중립 정책 추진성과를 직접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큰 학습의 기회가 됐으며, 이번 정책제안 간담회를 통해 우수한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수에 참여했던 장남정 전북탄소중립 센터장은 “2050 탄소 중

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탄소 중립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수가 단순한 선진지 방문이 아닌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시급성과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추진의 막중한 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과제와 독일의 민간복지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개인별 정책연수 추진에 따른 소감을 말하고 전북도와 유관기관에 우수정책을 제안하면서 “오늘 논의된 정책제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정책개발 및 정책의 세부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전북도 및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다양한 정책발굴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체코와 독일을 방문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시 농촌협약 공모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재선)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협약 사업’ 공모에 정읍시가 선정돼

총사업비 255억원(국비 178.5, 지방비 76.5 *농식품부 협의회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올해 12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확정 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기초생활거점조성(1, 2단계), 농어촌 취약지역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읍시는 이번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을 1개 단일생활권으로 계획하고 칠보-산내-산외면과 소성-고부-덕천면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해 입법화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촌협약을 제도화했다.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윤준병 의원은 정읍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농식품부를 다각도로 설득해왔다. 특히 농식품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정읍시가 농촌협약에 선정돼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고창군에 이어 올해에는 정읍시가 선정되어 정읍·고창 지역의 공간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해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정읍시의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